

롯데그룹, 대우인터내셔널 군침

석유화학 · 자원개발 시너지 기대 ... 포스코도 본입찰 참여

롯데그룹이 호남석유화학과의 유화부문 시너지를 노리고 대우인터내셔널 매각 본입찰에 뛰어들었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5월7일 대우인터내셔널 본입찰 접수를 마감한 결과 롯데그룹과 포스코가 본입찰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롯데와 포스코는 대우인터내셔널 실사 결과를 토대로 인수가격, 자금조달계획, 자기자금비중, 경영전략, 사업 시너지 등이 담긴 최종입찰제안서를 매각주간사인 삼정KPMG에 제출했다.

롯데는 호남석유화학을 중심으로 자원개발과 유화부문의 글로벌 체제를 구축하고 대우인터내셔널 인수를 통해 해외자원 개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자원개발이나 해외마케팅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인수를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와 롯데는 채권단이 보유한 지분 68.1% 전량을 사들이기로 하고 인수가격으로 3조2000억-3조7000억 원 수준에서 썬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캠코는 포스코와 롯데의 입찰제안서에 대한 심사를 거쳐 5월 중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7월까지 대우인터내셔널 매각작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인수후보 중 하나인 지한글로벌컨소시엄은 자금조달에 실패해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5/10>